다시보는 불모지

❺ 한국불교영화 1950~1979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장일호 감독의 1964년 작품<석가모니>의 한 장면. 한국영화사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작품은 <석가모니>가 유일하다.

불교영화, 韓영화 발전 견인하다

얼마 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열렸죠. 대한극장에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영화제에는 18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고 해요. 11개 영화는 매진되기도 했다고 하구요. 좋은 성과를 보여준 영화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영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해보려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진 곳이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이곳에서 불교로 검색을 하면 115편의 영화가 나오는데 전부는 불교는 아닙니다.

'이 영화가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영화도 많습니다. 여기에 신광철 한신대 교수가 2002년 발표한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과 비교하면 대략 현재까지 한국 불교영화는 60~70여 편 정도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종교 계열 영화 중에는 가장 많은 편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은 한국영화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합니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는 영화 소재로 쓰일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불교 설화와 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최초의 불교영화로는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고 있습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한 〈마음의 고향〉은 모성에 목마른 동자승과 주지 스님의 이야기가 사찰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묘사된 수작입니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가 제작됐습니다. 〈성불사〉는 계몽 영화로 제작돼 당시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초기 한국영화를 이끌어던 신상옥 감독은 1955년 〈꿈〉과 1957년 〈무영탑(1957)〉을 내놓았습니다. 두 작품은 이광수와 현진건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 〈꿈〉은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주남 감독은 1958년 〈종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비극적 생의 연쇄를 통해 연기적 세계관을 표현해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이 작품은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1950년대는 불교영화를 통해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걸출한 불교 영화감독인 신상옥이 출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1960~70년대로 넘어가보죠. 전후 복구가 이뤄지고 사회가 성장하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확대됐습니다.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불교영화도 이 시기 제작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호국불교와 효성의 개념을 가진 불교영화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또한 고승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도 많이 제작됐습니다.

호국불교 영화들은 대부분 불심으로 왜적과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962년에는 장일호 감독이 〈원효대사〉를,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



1949년 윤용규의 〈마음의 고향〉이 최초 韓불교영화… 동자승 소재로 1950~70년대 불교영화 양적 성장 부처님 일대기 영화로 제작되기도

을 발표했습니다.

홍성기 감독의 1965년 작품 〈대석굴암〉도 호국불교영화로 분류됩니다. 이 영화는 석굴암 완성 과정을 그려내고 있으며, 석굴암 부처님의 빛이 왜적을 쫓아냈다는 내용도 담고 있죠.

전기 영화인 김승옥 감독의 1962년 작품 〈이차돈〉도 넓은 의미에서 호국불교 영화로 평가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호국불교 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작됩니다. 장일호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을 1978년에 내놨고, 전조명 감독은 〈서산대사〉를 1972년에 제작 · 발표했습니다.

효행에 대한 이야기도 불교영화로 다뤄졌습니다. 효를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 1967년 두 번에 걸쳐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이용민 감독의 1962년 작품 〈지옥문(1962)〉도 효 사상과 불교 설화가 접목된 작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화가 제작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장일호 감독은 1964년 〈석가모니〉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한국영화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는 이 작품이 현재까지는 유일무이 합니다.

영화 〈석가모니〉는 매우 한국적인 작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도 과정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는 유교적 가족애가 끈끈하게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로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 과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아내' 는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이죠.

1960년대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는 신상옥 감독의 1967년 작품 〈꿈〉과 〈다정불심〉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당시 감독들이 충효사상과 불교의 결합에 몰두한 데 반해 신상옥 감독은 비중있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화했습니다. 물론 소재주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불교 문예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할 부분입니다.

특히 〈꿈〉은 신상옥 감독에 의해 두 번 제작됐던 것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에 의해 1990년 다시 제작됐죠. 〈꿈〉은 〈삼국유사〉의 설화, 이광수의 소설, 영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동승〉과 함께 한국 불교영화의 소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무협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도 1960~70년대부터입니다. 앞선 영화들이 부처님과 고승 전기, 호국, 효행과 불교를 엮고 있다면 오락성과 불교가 만난 첫 사례이기도 하죠.

한국의 불교 무협영화의 시초는 바로 이혁수 감독의 1978년 작품 〈달마신공〉입니다. 내용은 달마조사가 남긴 무술서인 '달마비급' 을 고려인 서천위가 우여곡절 끝에 얻고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 12월에는 기념비적인 불교 무협영화 한편이 개봉되는데요. 한국의 이영우 감독과 중국 무협영화의 거두라고 평가받는 호금전 감독이 공동 감독을 맡은 〈사문의 승객〉으로, 홍콩에서는 〈공산영우〉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호금전의 후기 걸작으로 평가받는데 우리가 아는 현란한 액션의 무협영화와는 다릅니다. 도리어 한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액션들은 호금전만의 새로운 액션 개념을 보여주죠.

호금전의 〈협녀〉 같은 무협영화는 그 자체가 불교로 해석될 수 있으니 한 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와호장룡〉의 대나무 결투 장면은 바로 호금전의 〈협녀〉의 한 장면을 이안 감독이 오마주한 것입니다. 추후에 무협과 불교를 다룰 일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불교영화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최고불자명품 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승려연수 인증교육 (줌 화상교육)
과 정 명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 일 정 :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 육 비 : 10만원
• 접수마감 : 10월 14일(목) 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